

사회적 농업 지속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이효진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한석주 /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대표

이은경 /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대표

양정숙 / 완주떡메마을 원장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다. 2018년 9개 농장을 시작으로 매년 9~18개 농장이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농장이 114개소에 달한다.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은 ‘2018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①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②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통합을 실천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③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

* 이효진(mooltong12@naver.com):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에 대한 지원)이다. 이 초기 사업 내용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사회적 농업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이 주 사업 내용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사업 지원 내용도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화 되었다.

이 사업은 ①농업과 농촌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②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③단기 사업이 아닌 5년 장기 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예산 편성되었다는 점, ④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했다는 점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제 5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끝난 농장이 18개소가 되었다. 이들 농장의 사회적 농업 지속 실태를 조사하여,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이 끝난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농업 5년 보조금 지급 이후에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조금 지원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보조금 지원이 끝난 이후 사업을 지속하는 농장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보조금 지원이 끝난 이후 어떤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보조금 종료를 준비하는 농장에 가이드를 제시한다.

넷째,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 정리하여, 향후 사회적 농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관련 조직에 방향을 제시한다.

〈표 1-1〉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년도	주요 사업 내용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 사업대상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조직 형태: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조직 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구성: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원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비: 개소 당 최대 5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구축비: 개소 당 최대 1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 기간: 1년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범사업 → 지원사업 변경) ■ 18년도 시범사업자(9개소)는 18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19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19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19년도에도 지속 지원 ■ 지원한도액 (예산 구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 간에 구분 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 기간: 5년 (지원 기간 변경)
'20	(특이사항 없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강사비 요건 완화)
'22	(특이사항 없음)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에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육성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자활 근로 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지원 불가 (제한 요건 추가) ■ 지원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농장: 60백만원 - 예비 단계: 20백만원 (예비단계 신설로 1차년도 사업비 축소) ■ 지원기간: 5년 (예비단계 1년 포함)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변경) ■ 지원한도액: 55백만원(예비단계 20백만원) (사업비 변경) ■ 지원기간: 5년 (예비단계 1년 포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사업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 (제한 요건 완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공고문(2018~2024년도) 요약 정리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경제 토대 위에 발현된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실천 프로그램으로, 농촌사회의 주요 활동 자원인 농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지원 차원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농업의 출현과 발전은 사회적 경제의 기반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애초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붙어권 지역에서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차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 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발전전략, 특히 지역개발전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사회적 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EU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지역경제와 고용촉진(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석, 그리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종호, 2014, p139).

2009년 2월 EU의회는 89%의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2008/2250(INI))’를 채택하였다.¹⁾ 특히 내용 중 “사회적 경제는 불우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자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가 고안한 소액 신용 협동조합이 금융 포용을 용이하게 하고 여성의 영향력을 높인 것으로 입증됨), 또한 사회적 혁신을 위한 상당한 역량이 있어, 이를테면 직업과 사생활의 조화, 성평등, 가족생활의 질,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EU가 199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이유는 복지국가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1) 이 결의문은 7개 항목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c8b497b7-c360-4f61-8cfc-553324610673/language-en> (방문일자 2025. 1.20.)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이다.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개방 압력과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투자 축소와 생산성 저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에 맞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김종호, 2014, p137).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초고속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금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점과 나아가 경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K-컬처’라는 우리 문화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선진국의 위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속 성장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부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전용일, 2019, p346).

이에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의 국회 차원 입법을 위한 노력이 다수 시도되었고, 2)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도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 실천으로 시행되었다. 3)

2.2. 사회적 농업의 개념

최근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4) 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의 핵심은 ‘농업’, ‘취약계층’,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다.

2) 비록 입법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 5건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20대(2016-2020) 국회에서는 4건의 사회적 경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국민참여입법센터).

3)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경제 사업의 종류로 사회적 농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2조(정의) 제4호

이러한 법적 정의는 그간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내외 논의 경과를 수용하여 결핍값으로 도출한 개념 정의로 볼 수 있다.

통상 유럽의 사회적 농업 연구자들은 사회적 농업을 불우한 사람들의 재활, 교육 및 보호를 촉진하거나 ‘계약 능력이 낮은’ 사람들(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죄수, 마약중독자, 미성년자, 이주민 등), 즉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농업 관행으로 ‘임시 정의(tentative definition)’ 한다(Di Iacovo&O’Connor, 2009, p11). 여기서 ‘임시 정의’라고 한 것은 유럽 전역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farming for health, green care, social farming)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적 농업을 정의하기 어렵다(Di Iacovo&O’Connor, 2009, p12). 가령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도 그 개념이 쉽게 알려지거나 처음 들었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였다.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긴 시간 이어온 정신과 서비스와 지적장애 서비스처럼 돌봄 환경(care setting) 내에서 농업과 원예를 실천 및 활동으로 활용하는 오랜 역사가 있다(McGloin&O’Connor, 2007, p3).

그럼에도 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정의에 포함되는 공통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Scuderi, Timpanaro&Cacciola, 2014, p77).

① 농업 자원을 사용하여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창출하는 모든 활동(재활, 치료, 보호된 고용, 평생 교육 및 기타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활동). (COST Action 866 Green care in agriculture)

② 농업 시스템(농장 기업과 농부의 사회적 환경을 포함)과 돌봄 부문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업과 돌봄의 조합(Di Iacovo, .O’Connor, 2009)

③ 건강, 시민사회 또는 교육적 혜택을 창출하기 위한 자연의 이용(SoFar, 2007)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농업 활동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고, 농장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결속정책과 농촌개발정책 사이의 통합 논리에 기반하여 사회적 포용,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에서 행하는 제반적인 활동” 정도로 정의하기도 한다.5)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whole activities carried out by a farm in order to promote social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farming)’과 ‘지역 시민 사회 서비스(local civil society service)’라는 두 가지 뚜렷한 개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이다. 즉 사회적 농업은 농민에게 소득원을 다양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농업·농촌 개발 개념과 일치하게 되어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에 부합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농업은 시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농촌 지역주민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농업 및 농촌 자원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시민 사회 서비스제공 역할을 한다(Scuderi, Timpanaro&Cacciola, 2014, p77).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 사이에 사회적 농업이 지시하고 구현하려는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어 근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에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관련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보건, 돌봄, 노동 등의 영역에서 형성된 제도 환경 역시 혼종적 양상을 보인다.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다(김정섭, 2022, p1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농업을 한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회적 농업 활동은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농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농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특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은 도시와 농촌 간 새로운 교류를 가져오는 것 외에도 사람들의 삶과 농촌 지역의 개선에 기여한다(Foti, Scuderi&Timpanaro, 2013, p266).

3. 선행 연구 검토

사회적 농업의 발현과 확산 그리고 제도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유럽이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이 실천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이를 제도화하여 널리 확산시킬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2000

inclusion, poverty decrease and economical development of rural areas under one strategic development design based on a logic of integration between cohesion policies and rural development on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Scuderi, Timpanaro&Cacciola, 2014, p77).

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적 농업의 초기 연구는 유럽에서 2006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수행한 ‘SoFar 연구 프로젝트’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프로그램화 되었다.⁶⁾ 이후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임송수·김승애(2016)는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유럽의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의 사회적 농업 발전에 유용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혜진(2016)은 영국의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영국의 사회적 농업 발전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섭 외(2017)는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구하면서, 국외 4개국(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과 국내 5개 농장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정해(2017)는 유럽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실천과 지원 정책을 연구하면서, 유럽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제도적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임송수·임지은(2017)은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농업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농업은 패러다임 전환의 혁신적인 수단으로서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보혜(2019)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농업에서 농촌 기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지원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용일(2019)은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지원 대상인 사회적 농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6) EU에서 자금을 지원한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농업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불우한 사람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프로젝트 활동은 이 부문을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보상을 거두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슬로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7개 국가출신 2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 하였고, 국가별로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과 실천 사례를 연구하여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이 가지는 의의를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였다. <https://cordis.europa.eu/project/id/22682> (방문일자 2025.3.2.)

주장하였다. 조원지 외(2020)는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면서, 실천 주체의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형성 및 운영,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확산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리재웅·전익수(2021)는 사회적 농업 적용대상자 관점에서 취약계층 귀농인 실태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반 귀농인과 비교하여 취약계층 귀농인도 사회적 농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농업 대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정섭(2022)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관련 제도와 발전 과정을 연구하며 사회적 농업의 형성과 발전이 두 나라 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두 나라의 제도를 꼭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지선 외(2023)는 발달장애인의 영농 직업 재활 시설에서 사회적 농업 분야 근로 경험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근로 경험 전과 후에 나타난 심리사회적 변화를 탐색하고 사회적 농업 경험이 발달장애인에게 주는 가치를 파악하여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수정(2023)은 유럽의 사회적 농업 사례와 시사점을 연구하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4개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를 농업 활동을 통해 지원한다는 공익적 관점과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의 중심에 사회적 농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농업 추진계획 수립과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시행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진 외(2024)는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돌봄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정책과 제도화 경로 속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향과 가치를 모색했다. 또한, 결속적 관계를 통해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량적 관계를 통해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시작했고, 나아가 돌봄의 장소로서 농장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지선·한기명(2024)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분야 표준사업장에서의 취업 초기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업종이 제한적인 표준사업장의 농업 분야 확대 필요성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등 정책적·실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 초기연구는 주로 유럽 여러 국가의 사회적 농업사례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사회적 농업 제도 및 정책연구, 국내 법제 및 제도 연구, 국내 사례연구와 향후 개선 방안 등의 연구로 확대·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역사가 짧고,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천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농업의 실제적 효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 방식인 사례연구를 택하였다. 사례연구는 단독의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이다(Punch, 2005).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조직의 성격 및 사회적 농업 추진 배경, 사업 추진 시의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현장 사례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조사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보조금 5년 지원이 끝난 보조사업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종료된 농장은 2018년도 선정 사업자 9곳과 2019년도 선정 사업자 9곳이다. 농장 사정으로 인터뷰가 불과 한 1곳을 제외하고, 17개 농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 조사 대상 농장

사회적 농장	보조사업 선정년도	법인격	사회적 농업 참여 대상
A	2018년	농업회사법인	노인과 귀농인
B	2018년	영농조합법인	다문화여성
C	2018년	영농조합법인	장애아동
D	2018년	사회적협동조합	독거노인, 성인장애인, 발달장애아동 등
E	2018년	영농조합법인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F	2018년	협동조합	만성 정신질환자
G	2018년	농업회사법인	장애인
H	2018년	농업회사법인	청년과 고령농
I	2019년	영농조합법인	여성농업인
J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성인 정신장애인
K	2019년	영농조합법인	노인,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학생
L	2019년	영농조합법인	지역특수학교 정신장애 학생
M	2019년	영농조합법인	성인 장애인
N	2019년	농업회사법인	고령자, 저소득층
O	2019년	협동조합	귀농 청년
P	2019년	영농조합법인	특수학교 지적장애 학생
Q	2019년	농업회사법인	지역 내 청소년

자료: 2020년 사업계획 공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조사 질문지 작성

사례 조사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사회적 농업 보조금 종료 이후 활동의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지속 또는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농업 보조금 종료 이후 활동 지속 여부
- (사회적 농업 지속 농장) 활동 내용, 재원

- (사회적 농업 중단 농장) 중단 이유
-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의 성과
- 사회적 농업 활동의 애로사항

4. 현장 조사 일정

현장 인터뷰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7개 농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16개 농장은 2024년 4월부터 9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장 사정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1개 농장은 이후 인터뷰에 응해 2025년 2월에 추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현장 인터뷰는 대부분 연구팀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방문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장 인터뷰 이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림 2-1〉 주요 연구 추진 과정



농장 대표 인터뷰



현장 답사



전문가 자문



간담회 진행

5.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 전과 조사 중, 조사 이후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시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의 지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중간에 종합 간담회를 추진하여 연구 내용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보조금 종료 이후 사업 지속 여부

현장 인터뷰 조사 결과 활동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농장은 13곳이었으며,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곳은 4곳이었다.

〈표 3-1〉 보조사업 종료 후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 여부

구분	해당 농장	비고
활동 지속	A, D, E, F, H, I, J, L, M, N, O, P, Q	13개소
활동 중단	B, C, G, K	4개소

자료: 면담 조사

1.1. 사업을 지속하는 농장의 활동 내용

보조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농업 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농장을 지속하는 농장들은 대부분 기존 참여자와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2〉 보조사업 종료 이후 사회적 농업 활동 내용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법인격	사회적경제 조직 해당 유무
A	- 대상: 노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작물 공동재배 및 판매, 귀농인과 협력한 농사활동 참여, 관계망 구축 및 농지구입 등 자립기반 마련	영농조합법인	-
D	- 대상: 발달장애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청년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농업활동 참여, 지역 어르신과의 농사 지도 및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
E	- 대상: 범죄 피해자(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원예활동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강사 활동, 마을 정착 및 가정 형성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
F	- 대상: 만성정신질환자(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단기(일일, 4박 5일)·장기(2~3주) 농장 체험을 통한 사회복귀 훈련, 허브·쌈채소 재배, 마을행사 참여 및 주민 소통	협동조합	-
H	- 대상: 청년(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지역 공유지 자급농 실천, 일부 판매를 통한 활동 경비 마련	농업회사법인	-
I	- 대상: 귀농귀촌인, 노인, 장애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공동 농사활동 및 농산물 꾸러미 유통, 소득창출 및 자립지원, 공동법상 운영(코로나 이후 반찬나눔·말동무 서비스로 전환)	영농조합법인	○
J	- 대상: 성인 정신장애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친환경 소규모 다품종 생산(과수, 채소, 버섯, 닭, 양봉), 일자리 연계, 주민과의 유대 및 공동체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
L	- 대상: 지적장애인 가족(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주말 텃밭활동, 농산물 재배, 농장·매장·카페 취업 연계 지원	영농조합법인	○
M	- 대상: 성인장애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허브농장 운영, 도시민·아동과의 농업 활동, 장애인 자립 및 공동생활 가정 형성 지원	영농조합법인 (예비마을기업)	○
N	- 대상: 발달장애인(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발달장애 학생 활동을 위한 농장 조성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
O	- 대상: 귀농청년(기존 참여자 유지) - 내용: 선배 귀농인의 농업기술·정착 노하우 전수, 농업·생활기술 교육, 협동조합·직거래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협동조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법인격	사회적경제 조직 해당 유무
P	- 대상: 지적장애학생, 노인(협력기관 동일, 참여자 다름, 참여자 확대) - 내용: 허브농장 관리 및 가공·판매 실습, 농장·매장·카페 취업 연계, 어르신 대상 체험 교육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
Q	- 대상: 청소년(협력기관 동일, 참여자 다름) - 내용: 덕나무 문화교육 및 체험, 농업 가치 인식 제고	농업회사법인	-

자료: 면담 조사

1.2. 보조금 이후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

사회적 농장이 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주사업 중단에 따른 전체 활동 중단, 농장 부지 공사, 다른 사업에 집중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하지 못하는 농장

사회적 농장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법인격	사회적경제 조직 해당 유무
B	경제적 어려움	영농조합법인	-
C	주사업 중단	영농조합법인	-
G	농장 부지 공사	농업회사법인	-
K	다른 사업 집중	영농조합법인	-

자료: 면담 조사

1.2.1. (이유 1)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는 소득을 보전하지 못해, 농장주도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는 최저 생활비조차 벌 수 없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활동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농장도 있지만, 같이 돈을 모아서 최저 생활비가 나오게 해야겠다는 게 사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는 다들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최저 생활비를 잡고 자기가 하

고 싶은 거를 하는,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 외부에서 일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B농장 대표)

1.2.2. (이유 2) 주사업 중단

사회적 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농장주가 안정적으로 주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사업장 운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사회적 농업도 자연스럽게 중단하게 되었다.

식품 가공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공장 취업까지 연계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내산 원료로 식품제조를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장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친구들이랑 사회적 농업 활동을 못했어요. (C농장 대표)

1.2.3. (이유 3) 농장 부지 공사

보조사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농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농장을 조성했으나, 외부 상황으로 농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작년(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우리가 틀밭을 만들었어요. 성인 장애인들이 와서 농사짓는 텃밭 농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다 부담하고, 장애인들이 와서 같이 씨 뿌리고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중략)이른 봄에서부터 시금치. 그다음에 좀 있으면 상추, 수박, 오이 또 여름이 지나고 나서 무, 배추, 이렇게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올해 농장 앞에 개천 공사를 하면서 틀밭이나 텃밭이 뒤죽박죽 엉망이 돼서 올해는 잠시 쉬기로 했어요. (G농장 대표이사)

1.2.4. (이유 4) 다른 사업 집중

사회적 농업 보조금이 끝난 이후에 법인에서 추구하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에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는 간장 포럼 쪽에 있어요. 이게 올해로 11년째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해오다가 작년에 거창군 지원을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다 회비 걷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온 게 참 애착이 더 있지요. (중략) 올해 문화재청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문화재청 사업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되더라구요. (K농장 대표)

1.2.5.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농장의 공통점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농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법상 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점이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공동체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는 달리, 조직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영리 활동을 해야 하는 조직은 예산 지원이 끊기면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2.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농장의 특징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니, 사회적 농업 시작 배경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농장들은 사회적 목적 달성이 주가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점이다.

〈표 3-4〉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 농장 구분

구분	해당 농장
사회적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	A, F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D, H, I, J, M, N, O, P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유지	E, L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유지	Q

자료: 면담 조사

2.1. (유형 1) 사회적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

사회적 농업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지역사회 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직으로, 설립 취지 자체가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한 해당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2.1.1.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고,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방법으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였고, 사회적 농업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였다.

우리 법인은 원래 태생 자체가 '농촌 공동체의 재생과 복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농촌으로 귀농한 귀촌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나 조금씩은 다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중략)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욕구 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소득을 얻는 것에 욕구가 강했어요. 혼자 살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A농장 대표)

2.1.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농업을 위한 협동조합

농업 활동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역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13년도에 충남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남이 농업하는 곳이니까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 재활로 사회 복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센터의) 팀장이 제안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년짜리 사업을 받아서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중략)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었어요. 우리 농장은 세팅 자체가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농장이었습니다. (F농장 상임이사)

2.2. (유형 2)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농촌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은 농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에도 원래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2.2.1. 함께 농사활동을 위한 공동체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고, 농산물 가공으로 확대하면서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공동체적 성격이 있어 어렵지 않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2004년쯤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과 생산 공동체를 꾸렸어요. (중략) 그 친구들과 같이 지역 활동을 했었죠.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 내려와서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우리가 최초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나눔센터 사회적 기업 비영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공 사업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법인이 2008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N농장 대표)

2.2.2.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교육을 받고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교육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농촌에서는 농업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으로 인정받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법인격은 농업법인이나 내용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격을 띤다.

우리 황성공동체가 처음 황성군에서 다른 데 공동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 분할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교육을 받고서 2014년도에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2009년도에 제철꾸러미라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무제초제 이상으로 토종씨

앗도 지키고 다양한 품종으로 농사지어보자.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하게 지속적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여성 농민들이 통장 갖기였어요. 저희가 모여서 보니까 여성농민 이름으로 통장들이 없고, 있어도 활용을 안 하고, 농산물이 판매가 되면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성농민 통장 만들기 활동부터 시작했어요. (I농장 대표)

2.2.3.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 기업이죠. 우리는 그 기업을 선택해서 한 거고 영농조합이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자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법인의 수익을 각자 주머니에 N분의 1 하지 말고 우리도 좋은 일 하면서 마을의 명성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거죠. (P농장 대표)

2.2.4.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병원 치료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어려워,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제가 정신과 영역에서 재활을 하게 된 이유는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문의가 되고서는 실제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농장)에서는 밭도 가꾸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비티도 높아지고 실제로 정신병적 증상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좀 갖고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문헌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원예 요법 그런 정도 수준인

데, 필요해서 텃밭 사업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병원 개업하면서 진짜 제대로 해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한 거죠. (J농장)

2.2.5. 귀촌인들의 협력으로 시작한 영농조합법인

다양한 활동성을 가진 귀촌하신 분들이 모여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도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시작하면서 귀촌하신 분들 위주로 각 체험장을 농가별로 뒤서 시작했는데, 이게 울산에서 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중략) 그 당시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또 여러 부류에서 왔어요. 2009년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체험을 한번 해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도 장애인 단체가 계속 왔고, 또 그 쪽으로 나와서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진행도 해주고 했어요. 그런 게 계속 쌓여왔던 거죠. (M농장 대표 인터뷰)

2.2.6. 공동체적 삶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귀농인들이 농업 활동 외에 생태적인 삶을 협동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청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2013년도에 협동조합 설립을 했어요. 일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협동조합이 민주적이라고 하니, 4가구, 귀농을 준비하는 7명이 모였어요. 준비하면서 어떤 거를 마음을 모아서 할지,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농사야 늘 같이 품앗이하니까 그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정 기술 에너지, 적정 기술 부분이 농사와 같이 중요하다, 그와 유사하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연구하고 보급하자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나 잡았어요. 또 하나는 여기가 작은 도서관이 등록된 곳인데, 도서관 겸 모임 공간이죠. 그때는 마을 카페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카페는 이제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외부 손님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서 배움과 모임들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중장년들은 도시 생활했던 것

을 정리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데,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모아놓은 자산이나 이런 게 없고, 네트워크도 약하니 귀농귀촌이 어려울 것이고, 해도 오래가기 어렵다. 귀농이나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기댈 언덕이 돼주자,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활동이라고 잡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공방도 짓고, 마을 도서관도 짓고, 마지막으로 완공한 게, 귀농하는 청년들을 돕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공유주택을 하나 지었어요. 이제 땅은 조합원이 무상 임대, 영구 임대로 내놓고 건물 3채를 직접 다 그냥 봉사로 지었죠.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신청해서 한 해는 직접 했어요. 그 당시에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나 그렇게 하던 차에,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미 1년 차 모집이 끝나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O농장 대표)

2.3. (유형 3)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맺어진 관계 유지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유대 관계가 깊어졌다. 이 관계의 힘은 보조사업이 끝나도 활동을 지속하는 힘이 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 왔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대상자들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건져줬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고 했는데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게 보여요. 얼굴빛이 달라진다는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땅만 쳐다봤어요. 눈은 못 마주쳐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남자한테 피해를 봤다 하면, 남자가 오면 경계심이 있고, 또 다른 연상되는 것들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경직)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회복되는 것들, 뭐 우울증약을 먹었던 사람이 약을 끊었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농장 대표)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5년 동안 장애 가족들과 장애 가족들 텃밭 만들어주는 걸 계속했어요. 텃밭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사회적 농업을 내년도 또 해요? 안 해요?’ 농장을 하느냐고 묻는 거야. 참여하는 엄마들이. 그래서 예산이 끊겨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중략) 그래서 고민했어요. “주말 텃밭을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마세요.” 했지요. (L농장 대표)

2.4. (유형 4)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유지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이어가기도 한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자를 연계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마을 활동가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절기별로 자료가 있으니 그 절기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재료가 절기별로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전시하는 대부분 작품이 남아 있는데 특히 제천의 칩닝쿨. 진행한 청년들에게 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칩닝쿨 갖고 수업했거든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마을 활동가 양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농장 대표)

3.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자원

사회적 농장 활동을 지속하는 농장의 자금 원천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농업 활동 재원은 하나의 사업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원을 끌어와 쓰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이 되는 곳은 후속적인 예산을 마련한 곳도 있었다.

3.1. 자체 수입

모든 사회적 농장은 자체 수입이 있었고, 자체 수입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자체 수입은 농업 소득, 농산물 가공, 체험, 교육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 후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3.1.1. 농산물 가공 수입

농업 생산과 함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가공식품 판매를 주 수입으로 법인을 유지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비도 법인에서 지원한다.

지금 두부 매출이 29억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25억으로 떨어져서 이제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농업 생산은 그렇게 유지도 안 됩니다. 두부 생산 덕분에 이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1인당 연봉이 한 3천만 원씩은 되는데. (중략) 그래도 두부 매출에서 이익금이 나오니까 수익금으로 농업 활동 운영비를 메우고 있어요. (N농장 대표)

3.1.2. 식당(레스토랑) 운영 수입

사회적 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이 수입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시작할 때는 저희 12억이었고요. 지금은 매출이 40억 정도예요. (중략) 저희는 주생산품이 한우예요. 사회적 기업이니까 수익금을 사회 공헌에, 이런 활동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이것들을 공동체 구성원한테 이해시켜 줘야 하는 거죠. (P농장 대표이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이 짧아서 근무 시간 이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의 동아리 활동 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서 농업 활동을 했었어요. 근처 마을과 연계해서 할머니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죠.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에도 마을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활기차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활동이어서,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레스토랑 수입으로 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D농장 상임이사)

3.1.3. 기부금 수입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인 농장은 기부금을 받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표 3-5〉 사회적 농업 지속 농장의 활동 자원

사회적 농장	활동 자원				비고
	자체 수입	직접 보조금	간접 보조금	참여자 (기관) 자부담	
A	●	-	●	●	① 농업 수입 ②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③ 참여기관프로그램비부담
D	●	-	●	-	① 교육 활동 수입 및 회비 ②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E	●	-	●	●	① 농업 수입 및 체험, 바우처 수입 ② 사회적 농업 참여자 주거지원 ③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F	●	-	●	●	① 농업 수입 ②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③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H	●	-	●	-	① 농업 수입 ②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I	●	●	●	●	① 농업 수입 ② 사회적 농업 활동지원 (지자체) ③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④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J	●	-	-	-	① 농업 수입 및 기부금 수입
L	●	●	-	●	① 농업 수입 ② 마을공동체사업(지자체) ③ 참여 가족 자부담
M	●	-	-	●	① 농업 수입 ② 참여기관 자부담
N	●	-	●	●	① 농산물 가공 수입 ②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보조금 ③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O	●	-	●	-	① 농산물 수입 ② 교육청 연계 보조금
P	●	-	●	●	① 농업 수입 및 식당 수입 ② 교육청 예산 마을학교 운영 ③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Q	●	-	-	●	① 농산물 가공 및 체험 수입 ② 참여기관 프로그램비 부담

자료: 면담 조사

사회적 농장은 전체 협동조합의 일부분이다. 지금 기부금이 이것저것 다 합해서, 조합원도 내는 것들까지 1년에 2억이 넘는다. 이 기부금으로 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 자금으로 쓰인다. (I농장 대표)

3.2. 직접 보조금(사회적 농업 활동비)

사회적 농업의 활동으로 진행한 사업을 지속하게 하려고, 지자체에서 후속적인 사업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 실적에 대해서 행정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후속 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이 지원되면서 행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4년 동안에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성군 농정지원과에서 고민해서 사회적 농업 보조금 끝난 후 사업비를 마련해 줬어요. 예산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고, 20%를 자부담해야 했어요.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면, 자부담 사업 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올해 예산 3,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을 황성군에서 지원받고 600만 원 자부담을 했어요. 사실 600만 원 자부담은 우리 법인에서 큰 지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6개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결국 총회를 열어 자부담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꾸러미나 농산물 판매 소득으로 자부담을 내는데, 노인 돌봄 반찬 나눔 재료비는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강사비만 지원금으로 하고 있어요. (I농장 대표 인터뷰)

우리 지역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고, 법인 설립 전 2018년도에 임의 단체로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해봤어요. 도시에 있는 비장애인 가족하고, 여기 시골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같이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그것이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공동체 사업을 잘해서, 우리 공동체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신뢰하고 있어요.

모니터링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보조금 종료 이후에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제가 힘들어서 내년에 또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한다고만 하면 예산 지원은 계속 해 주려고 합니다. (L농장 대표)

3.3. 간접 보조금(조직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

보조금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쓰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이 유지되는 데 쓰일 수 있는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적 농업을 간접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리 농장은 참여자가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군에서 집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줬어요. 마을 주민들과 두부도 만들고 보존화도 제조했던 공간을 다 뜯어내고, 집으로, 안에는 아파트처럼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저가 가정에서 3명이 살고 있어요. (E농장 대표)

3.4. 참여자의 활동비 부담

3.4.1. 참여기관에서 예산 부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함께 협력하며 진행했던 참여기관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저희가 사업 끝나기 한 3년 전부터 홍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했고,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하고도 했는데, 두 개 기관에 우리가 한 2~3년 활동했던 평가가 모두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업비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 우리 부담으로 하는 건데 이거 몇 년도에 끝난다. 그러고 나서 계속할 수 있겠느냐, 계속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너희가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해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전에 워밍업으로 저희 사업이 한 2년 남은 3년 차부터 참여기관 예산을 좀 쓰도

록 했어요. 장화를 사야 하는데 우리 사업비로 장화를 안 사는 대신에 기관에서 장화를 사시게요. 또, 요가하는데 요가 매트를 기관에서 사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조금씩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 자부담을 받고 하는데 사업비 받았을 때보다는 훨씬 적죠. (F농장 상임이사)

3.4.2. 참여자 개인 부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활동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가고 싶은 경우에 가능했다.

우리는 후속 사업으로 지방비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70만 원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1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텃밭 분양할 때 10평을 분양하고, 10만 원씩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L농장 대표)

3.5. 예산 없이 활동 지속

농사 활동 자체에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농장주의 봉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곳들도 있다. 혹은 후속 사업을 준비하며, 후속 사업비가 마련될 때까지는 농장주의 봉사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냥 내게 소득은 안 되더라도 그 현장 유지만 된다고 해도 성공이라고 봐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품값만 되면 성공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내 투자된 돈 회수하는 거는 포기하더라도요. (L농장 대표)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다른 농사를 지어 수입을 좀 내서 지원받을 때까지 유지해 나가야지요. 법인에서 참여자들과 계속 활동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에도 도전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원 안 받을 때는 개인별로 봉사

하는 거고, 또 지금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개인별로 지출하면 되지요. (M농장 대표)

4.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의 성과

4.1. 개인적인 보람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면서 개인적인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 이 부분은 정량적인 성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수의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가 애들이 오면은, 애들 이름 불러주고, 아는 척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등 두들겨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좋아해요. 우리 애를 이름 불러주고 편하게 대해 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알고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달장애인이 많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장애인들, 부모들을 알게 되었어요. 엄청 힘들게 애들을 키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로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는 거 보고 내가 많이 느끼고 배운다니까요. (L농장 대표)

4.2. 조직의 사회적 가치 활동 강화

사회적 농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았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조직을 쉽게 설명하고,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접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 의미만 있다. 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에

서 사회적 농업이다, 라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돌봄과 복지적인 측면들이 실제 들어오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과정들을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중략)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도 알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욕구나 니즈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죠.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돌봄과 그리고 농촌의 재생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겼죠, 저도. (N농장 대표)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사회적 농장이 뭐예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시에서는 기업이고 농촌에서는 농장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활동이 아닌 건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게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농장 하기 전에 토종 씨앗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푸드플랜 그런 데 일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니까 일하기가 수월하게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J농장 이사장)

4.3. 조직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회적 농업 보조금으로 그동안 법인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해 보고, 개선하게 되기도 하였다. 농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때는 빠듯하게 일정을 소화했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농업 덕분에 농작업환경을 편리하게 바꿀 기회가 되었죠. (사회적 농업이) 아니었으면 고생만 하고, 아직도 호미 하나로 농사짓는 시스템이었을 텐데 나름대로 많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죠. 또 노인이라 장시간 일할 수 없는 특성이라 반나절씩, 하루 일을 2~3일로 나누어서 일하는 환경, 노인의 특성에 맞추는 일 환경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노인도 매년 더 늙어요.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점차 활동을 못 하시게 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시죠. 이

런 활동이 15년째인데, 15년이니까 참여했던 많은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다 노인들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간 보호센터에 들어가시거나 또 다른 데 (요양시설에) 계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사람 사는 문화나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굉장히 적응을 빠르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농촌 노인들이 농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뭔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됐었어요. (할머니들이) 운전 못 하시는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노인으로 접어드는 세대는 운전도 하시고, 읍내 문화센터나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을 찾아 즐기는 세대라 욕구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활동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A농장 대표)

4.4.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보조금이라는 재원이 확보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었다.

사회적 농업은 자원봉사 마인드가 없으면 못 해요. 보조금으로 연연해서 간다면 오래가기 힘들고 보조금이 끝나면 지치고 지속하기 힘들어요. 조금 내가 희생 봉사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운영하기가 조금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은 운영이 확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마중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있으면 하나 할 거 열 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 혼자 죽어라 아등바등해서 하나 하기 어려운데,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면은 열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E농장 대표)

4.5. 청년 인구 유입 효과

4.5.1. 청년의 지역 탐색의 중간 다리 역할

농촌 활력에 필요한 청년이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중간 매개자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작업장에 오는 청년들과) 호두를 직접 가서 털었어요. 엄청 더웠을 때거든요. 지금도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 중 하나가 서울에서 귀농해서 지금 농사지어요. 목화 농사지어서 작업을 해요. 옛날 목화가 지금 하향세니까,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이거 하는데 이 (공예)자료를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자료 같은 거 다 줬거든요. 젊은 작가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중략) 여기 있다가 군대 가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창업을 한다거나 직접 시골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됐거나. 여기 저희 집에 와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중략) 그런 청년들이 이런 중간 거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와도 인건비도 줄 수가 없었으니까, 잠깐잠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사회적 농업 선정 이후로는 차비라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청년들이 뭐 1~2년씩 같이 일도 하게 되고 이런 걸 하겠죠. (Q농장 대표이사)

5년 동안 여기 28명이 지원을 했어요. 1년마다 새로 모집하니까 28명이 지원을 해서 17명이 정착을 했어요. 이 인근에 살아요. 인근에 살고 집을 못 구한 청년 중에 일부가 근처 구레나 순창으로 정착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같이 어울려 귀농해서 살아가는.

저희 조합원이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본인이 또 자발적으로 '나도 협동조합 가입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협동조합 인원이 49명인가. (중략) 저희 조합 사람들이 우리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함께 활동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중장년 조합원들도 오히려 같이 시너지를 내서 삶의 내용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이죠. 다들 농사 지으러 왔으니까 농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생태적인 문제에서도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소문이 났는지 청년들이 자꾸 찾아와요. (O농장 대표)

4.5.2.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에 기여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세대 갈등을 극복하여 정착하는 계기가 사회적 농업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청년에 주목했는데, 처음에 어찌 되었든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저기 꿈엔들 땅도 제 땅이고 그 건물 지은 것도 거의 제가 지었고 (중략) 사회적 농업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난 거예요. 사업 하면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청년들과 코드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난 이미 꼰대였던 거죠. 그렇지만 청년들과 지내면서 서로 이해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또 남아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농업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이 된 거죠. 그런 예상을 전혀 못 했어요. (O농장 대표)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이 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2년~3년 정도는 청년 2명하고 50대 2명하고 같이 있으니깐 1년만 일하면 청년들이 다 도망을 가서 우리가 잘못 했나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50대와 20대가 있으면 20대가 견디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이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해서 운영했는데 처음에 4명이 와서 3명이 남았어요.

남은 3명과 또 다음에 4명까지 7명이 되니까 그들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래서 최우수 프로그램 농림부로부터 받았지요. 그러면서 또 청년들이 같이할 수2 있는 농사가 없으니깐 안 되겠다 싶어서 장기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지금 청년들이 22명 정도가 덕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목공소 예술 프로그램, 농사짓는 친구들 그다음에 실무자들 영상하는 친구들이 남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 집수리하는 것, 그다음에 간호사도 한 명 오면서 복약 치료라든지, 또 차 있는 친구들은 병원 이송이나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적 농업, 청년 마을, 청년 정책 플랫폼을 경험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생활 돌봄공동체를 신청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H농장 대표)

4.6. 귀농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움

농촌에 귀농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해서 되돌아 가는 역귀농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에 귀농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가 사회적 농장이지만, 한 3년 전부터 고령 여성농업인들과 우리가 함께했던 분들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 활동을 했는데, 돌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상 나눔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밥상 나눔 활동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끝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이 마을 공동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찾아가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중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지역과 귀농귀촌을 희망했거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 다문화 가정들 공동체가 다 어우러져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법인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사회적 농장 농업 목적에 200%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2009년도에 만들면서 청년과 함께하고 고령 여성 농민과 함께하려고 했던 부분을 사회적 농업 덕분에 실현하게 되었어요. 사회적 농업이 아니었으면 그분들과는 단절되었을 것 같아요. (I농장 대표)

4.7. 공동체 재건

공동의 문제 혹은 공통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가 필요할 때 공간 제공의 성격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도 한다.

사회적 농장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겁니다. (중략) 이 정도 농장 규모가 제대로 세팅되면 서울,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센터 캠프장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 수입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농장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 이 마을하고 같이 소통하며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커뮤니티 리스트릭션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전국의 곳곳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 나 여기

가서 생활해볼래'라고 하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사회적 농업을 통해 그런 걸 좀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J농장 이사장)

4.8. 마을 주민 화합 기여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기존 마을 주민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펼치며,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에 기여하기도 했다.

사회적 농장이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일자리도 됐고. 저희는 보조 강사분들이 마을 어르신들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농장에 오고 싶어하시고 그런 게 좋았죠. 우리 돈 내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준 돈으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 거죠. (M농장 대표)

4.9. 지역사회 활력 강화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를 함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마음이 모여면서, 지역사회 활력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군 전체에 엄청난 활력이 되고 있어요. 농민회도 다 들어가서 기후정의위원회 이런 것도 제안해서 만들고, 우리 군의 환경연대를 새로 만들려고 지역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청년들하고 협동조합 사람들하고, 하여튼 군에서도 무슨 청년 시민학교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뭘 하더라고요. 후계농민으로 남는 청년들하고 같이 지역사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적인 참여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참여를 해서 지역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정말 활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농사는 참 별나게 짓는 애들. 풀하고 같이 짓는 애들 이러면서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지역의 이런 일들, 특히 환경과 관련된 현안은 앞장서서

해준다는 인정은 받고 있어요. 인근 마을에 저도 그렇고 이장이 3명이에요. 주요 이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맡으려고 맡은 것은 아니고 워낙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저희 협동조합이나 청년들이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하고 어울렀다기보다는 각자 속한 마을에서 좀 유별나게 (담쌓고 지낸 게 아니라) 마을 분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섞인 것 같아요. (O농장 대표)

5. 사회적 농업 활동의 애로사항

사회적 농업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간에도 일부 농장에서 사업비 반납을 고민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 사회적 농업 활동의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5.1. 대상자와의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와의 관계 유지가 사회적 농업을 하는 어려움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신뢰 관계 등이 깨진 경우 이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을 하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나보고도 이제 대상자들을 연결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이분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게 피해자 입장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소화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략)

진짜로. 대상자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마음 열지도 않고요. 저도 18년 때 괜히 했다 싶고, 19년에 안 하려고 했어요. 사회적 농업 반납한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저를 겪어보면서 내가 자기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E농장 대표)

5.2.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소득 창출 어려움

농업 활동도 생산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일은 바람직한 모델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업농도 농업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이 농업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귀농인과 외국에서 온 여성들 위주로 진행했어요. 첫해는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도했어요. 도시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하면 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비싼 데다가 인건비도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첫 해 하고 둘째 해부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막 몰아세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을 이만큼 해서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회적 농업인가 안 하고 말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이렇게 몰아세운다고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B농장 대표)

5.3. 예산 집행의 어려움

농업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은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예산의 집행 방식과 증빙 서류를 만드는 일은 농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 생각되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증빙 서류 만드는 거,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야 하고, 활동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사회적 농업으로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것 같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다 써야 되지. 국가 보조금이라고 해도 그만한 서류 쓰고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 (L농장 대표)

5.4. 사업 지침과 현실의 괴리

사업 지침이 실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맞지 않아,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 임에도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로사항이요. 딱 하나예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사실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이 용도로 써라 이걸 이 용도로 써라 이런데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약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사업범위 내에서 예산을 알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인솔하고 진행한 선생님들은 또 밥값이 안 나가요. 선생님들 왔는데, 장애인들 하고 1 대 1인데, 그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일반 학생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보조 교사도 있고 주 교사도 있고 그런데 이걸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C농장 대표)

5.5. 행정적 업무 과다

사업비 규모에 비해 행정 업무가 많은 편이다. 특히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매회 강사비와 재료비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지출 증빙 서류와 출석부, 활동 일지까지 행정 서류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게 6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신경 쓰는 건 1억 2천 이상이더라고요. 이걸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걸쳐 있고, 또 효과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걸쳐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피곤했어요. (B농장 대표)

6. 사회적 농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준비

6.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장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하우스라도 하나 지어 놓을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지원이 있었을 때 하우스라도 세워 놔으면 이분들하고 또 다른 농작물을 키워서 더 확대되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을 놓쳤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E농장 대표)

사회적 농업은 농장 입장에서는 참여자를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참여자가 농장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한 요소를 없애거나, 이분들이 농장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축해 놓는 것들을 사업비가 있는 동안 해 두어야 해요. (A농장 대표)

6.2. 참여기관의 활동비 자부담 예산 마련

참여기관도 보조사업이 끝난 이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조금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활동비 일부를 미리 자부담하며, 예산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장애인자립센터와 주간 노인보호센터랑 활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이곳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프로그램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을 때에도 50% 자부담을 하였고, 지금도 50% 자부담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원 이후에 자구책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단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3년 정

도는 보조금 전액으로 하던 것을 그 이후부터는 50% 자부담을 하시도록 했어요. 보조금 지원이 끝난 지금도 계속 5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50% 정도만 받는다면, 운영은 될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자재비나 이런 거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니까 유지할 수 있습니다. (M농장 대표)

6.3. 연계사업 제안을 통한 소득 기반 마련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농장 중에 농업 소득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직은 한 곳도 없었다. 전담으로 농사만 지어도 생활비를 버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서 사회적 약자와 챙겨야 하는 사회적 농업은 부수적인 소득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웠다. 농촌사회에서의 일거리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하여 부수적인 소득을 만들어 가는 일도 있다.

농업(만)으로 소득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안 쓰기 전략과 알바를 하죠.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알바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학교 텃밭 하잖아요. 학교 텃밭을 저희가 제안해서 시작했어요. 고흥에서 하는 걸 보고 이거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교육지원청에 제안해서 '교육농 양성 과정'도 만들고 해서 곡성 관내 12개 학교가 지금 시행해요. 우리가 참여하는 학교가 지금 5개로 청년들이 주 강사나 보조 강사로 들어가고, 그게 무시 못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하자'.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아이들하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한 학교에 2주에 한 번씩 가고 저희가 이런저런 지원도 해서 한 학교에 한 30만 원을 받게 하니까 2개 학교 참여를 하면 6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청년들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O농장 대표)

6.4. 소득 다각화를 위한 인증 취득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이나,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대체로 사회적 농장은 6차 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마을기업 인증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원 확보를 꾀할 수 있다.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면 농산물 재배 관련 체험 키트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에 체험 키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학교나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체험 키트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 있어요. 이를테면 반려식물(모종) 화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키트로 구성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 수업재료로 30개, 100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하던 내용을 키트상품으로 개발하는 게 목표죠. 6차산업 인증은 준비하고 있어요. (A농장 대표)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 타이틀을 따게 되면은 아무래도 홍보나 판매나 이런 쪽으로 유리하니까(중략)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아까 보셨던 수직 농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직 농원에 딸기나 채소 재배를 하는 거죠. 이 수직 농원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게 되는데, 마을기업 지정이 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M농장 대표)

우리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입니다. 이걸 교육부에서 우수 체험 기관에 대해서 인증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 기부를 하는 사회적 공헌인 거죠.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되면, 교육부에서 지정 기관을 홍보해 주기 때문에, 체험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P농장 대표)

6.5. 후속 지원사업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을 받는 동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초기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획할 때보다 후속적인 예산을 조금만 투자하여도,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이 시설비도 쓰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는 각종 비용으로 5년 동안 5천만 원 상당을 써 왔잖아요. 써왔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돼 왔고 이제 끝날 시점쯤 되면 농장이 기반도 만들어졌고, 시설도 구축돼 있을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형성됐을 거고,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도 있을 거고, 운영하는 묘도 생겼을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는 이제 지속되려면 그런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전담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나와주면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N농장 대표)

6.6. 민간 자원 연계

정부 보조금 이외에도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농어촌 희망재단은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과 공공기관이 후원하여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60년대에 옆 마을에서 짚신을 삼아서 갔나 봐요. 겨울에 용돈벌이로 짚신을 삼았던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짚신을 삼아서 판매하고 하길래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짚신을 삼고 계셔서 신기했어요. 이것을 프로그램화한 적이 있어요. 농어촌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2년 지원을 받아서 짚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세종시 축제 때 나가서 시연도 하구요.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도 한다고 할머니들 좋아하셨어요. (L농장 대표)

IV.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 보조금 지원 이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적 농업을 목적에 두고 사회적 농업 실천 자체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인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어떻게 쓰이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지속 방향 모색을 위한 각 주체별 제언

1.1.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농장 단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조직의 방향과 맞았을 때, 지속 가능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보조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농업의 방향성과 조직의 방향성이 맞도록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가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은 참여자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곳이다. 농장 안에서 교육과 훈련,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절한 시설 구축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수 사항이 된다. 시설 구축만 안정적으로 해 향후 안정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지원 이후에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가능한 조직과의 협력이다. 참여 조직과도 비전을 공유하며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과의 소통이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행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예산 확보이다. 예산은 자체 매출을 확보, 지역사회 연계, 바우처 연계 등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6차 산업 인증,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 기업 지정 등 농업과 연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많다.

여섯째,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다. 사회적 농업은 활동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사회적 농업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 참여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기관의 협력 정도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진다.

첫째, 참여기관은 사회적 농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을 선발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기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 제공과는 다르게 참여자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참여자가 필수적이다. 수고스럽더라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설명이나 견학 등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알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발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참여 인솔자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사회적 농업 참여자에게는 인솔자가 리더 혹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솔자가 사회적 농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면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솔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농장 활동 강사가 더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진행할 수가 있다. 사회적 농업 참여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농장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해 주어야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이다. 보조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일부 사업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무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유상의 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기관에서도 부담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없는 상황을 함께 대비하면서 예산 확보를 함께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활동 기록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참여자 개개인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농민이 강사가 되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과 처음에 참여자의 특징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참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기록해 주면,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이다. 사회적 농장주는 참여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짜거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참여기관에서 함께 보완해 주면 참여자의 만족도와 효과를 볼 수 있다.

1.3. 지방 자치 단체

사회적 농업은 단순히 개별 농장을 지원해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 하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회적 농업은 결국 지역에서 행정의 고민을 함께 나눌 파트너 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은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 일자리, 환경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의 함께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에서 도와서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적인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

둘째, 농장 입장에서의 보조금 해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장주가 해야 할 역할이 많고, 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조금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과 e나라도움 행정 업무는 농장 활동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해석이 유연한 항목은 농장에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장의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조직과 연결하려고 할 때 행정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할 때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정보망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와의 연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므로, 이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의 연결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농업 보조금, 공동체 활성화 예산, 도농 교류 등 사회적 농업과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시도된 사업임을 인지하고, 사회적 농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직의 성격과 비전을 바라 봐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는 참여 조직의 성격과 비전에 따라 좌 우되었다. 지역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일수록 사회적 농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활동을 근간으로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결국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농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보조금 사업 지침에는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⁷⁾에서 참여하는 농장 모두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는 지침은 일반 농가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 단독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농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장도 다른 농장과 공동체를 이루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농업의 저변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다. ② 청년을 사회적 농업 참여자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는 청년 대상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 활력에 역할을 하고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고령화로 활력이 부족한 농촌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사회적 농업이었던 것이다. 개인을 지원하는 여느 청년 지원 정책보다 더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청년의

7)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행정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사업 초기보다 후반부에 사업 지침이 세부화되었고, 다수의 농장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력을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실천임을 인지하고, 지역의 자립성과 활동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래 지역사회의 조직들이 추구하던 철학을 지키면서 사회적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사회적 농업 보조사업 5년을 받는 동안 핵심적으로 구축해야 할 사안이다.

넷째, 사업기간 동안 사회적 농장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자산에는 시설 자원, 인적 자원, 프로그램 자원이 모두 해당된다. 보조금 사업을 받는 기간 동안 축적된 자원이 있어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보조금 지원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도록 장려하면서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안 묘목 구입 등 자산 축적 관련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 종료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동안 자산을 축적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이 종료된 농장의 후속 지원 자원을 마련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동안, 축적된 자원을 토대로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쌓은 사회적 농장이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24년부터 사회적 농업 지정제도가 시작되었다. 일정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후속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사회적 농장의 지속 여부를 조사하면서 농촌에서 헌신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사회적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바라보다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이 확장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사회적 농업이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농업 사업의 활용 범주가 달랐다.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찾아서 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초창기 사회적 농업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곳들이 많았다. 이들은 그동안 활동의 경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궁극적인 방향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로 귀결되어, 하고 있는 다른 활동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즉, 조직의 활성화가 사회적 농업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농업 활동이 조직의 활동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보조금 사업이 알려지고,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보조금의 공고문을 보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동을 한 곳들이 늘었다. 이곳들은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적었다. 따라서 초창기(2018년~2019년도 사업) 선정 농장과 3년 차(2020년도) 이후에 선정된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 성과와 보조금 지원사업 이후 지속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 3년 차 이후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 농장의 지원 종료 이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초창기 농장들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더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태 외 5인. (2017).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남훈·김정섭. (2021). “제3장 주민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 김영란·조미형. (2023). “사회적 농업으로 농촌복지 실천이 가능한가?” 『비판사회정책』, 80.
- 김종호. (2014).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47, 137-13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정섭. (2022).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관련 제도와 발전 과정.” 『국제사회보장리뷰』, 22(가을호), 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섭·조승연·하인혜. (2020).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외 3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정책연구보고서 2017-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외 3인. (202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8-202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22). 『사회적 농장 업무 매뉴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2023). 『2024년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리재웅·전익수. (2021). “귀농인 실태조사를 이용한 취약계층 귀농인 실태 비교분석: 사회적 농업 적용대상자 관점.” 『농촌사회』, 31(1).
- 송미령 외 4인. (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수정. (2024). “유럽의 사회적 농업 사례와 시사점.” 『지역과 농업』, 11. (사)지역농업연구원.
- 이정해.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 실천과 지원정책.” 『농정연구』, 63. (사)농정연구센터.
- 이혜진. (2016). “영국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2016(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지선·한기명. (2024).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분야 표준사업장에서의 취업 초기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64.
- 이지선 외 3인. (2023).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농업 분야 근로 경험과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 영농직업재활시설 S농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0.

- 이현진 외 3인. (2024). “공동체 돌봄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특성: 완주와 제주의 사회적 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34(1).
- 임송수·김승애. (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2016(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지은. (2017). “사회적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KREI 현안분석』,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용일. (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법학논고』, 67, 34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19).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황보혜. (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자리창출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Di Iacovo, F.&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SoFar Project: Supporting EU Agricultural Policies.
- McGloin, A.&O'Connor, D. (2007). An overview of social farming in Ireland. School of Bi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University College Dublin. 3.
- Foti, V., Scuderi, A.&Timpanaro, G. (2013). Organic social agriculture: A tool for rural development. Quality - Access to Success, 14(S1), 266.
- Scuderi, A., Timpanaro, G.&Cacciola, S. (2014). Development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the EU-2020 strategy. Quality - Access to Success, 15, 77.
- Punch, K. (2005).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온라인 자료〉

사회적농업 온라인포털(<https://socialfarm.kr>)